

‘성’전문상담원도 성교육 필요

93.3.5

자위·혼전 성관계·동성애 등 상담 개인적편견에 의존

청소년 성문제 상담기관 상담원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정확한 지식보다는 개인적 편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성 상담원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 선임연구원이 최근 전국 청소년상담기관 상담원 3백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상담원의 성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 성 상담원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위행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충동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돼 ‘지나치지 않으면 나쁠 것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6%(남자 13.5%, 여자 4.7%)가 “남자에게는 조루증, 여자에게는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허위사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위행위는 “청소년의 바

람직한 성충동 해소책의 하나다” “생리적·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등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응답은 22.9%, 33.7%로 의외로 낮았다.

“결혼을 약속한 20대 미혼 남녀의 성관계는 애정표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23.8%), “서로 장래를 약속한 사이라면 군 휴가 때 애인끼리의 성관계는 피하기 어렵다”(16.8%) 등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58.4%가 “남자의 성욕구는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여자는

애정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응답해 모순을 보였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매춘은 피하기 어렵다”(46.8%)고 매매춘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동성연애는 6.8%만이 인정했다.

이 연구원은 “상담원이 자신의 편견이나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 상담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체계적인 성교육 기준과 상담기준 마련, 전문상담 요원 교육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을 좋아하는 책

진짜 실력으로 입학한
찬란한 신입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찬란한 신입생”

소설 목민심서

황인경
대하장편소설
전5권 각권 4,500원

도서
출판
삼진기획
전화 737-9665 팩스 720-7296